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해남촌’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사회 이주민 연구의 과제

염미경**

국문 요약

이 글은 국제이주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공간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지역성과 지역정체성을 논의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글은 지역개발과정에서 출신지를 떠나 제주도로 들어온 사람들의 초기 정주과정, 특히 이들의 초기 정착지 ‘해남촌’의 사례를 통해 최근 다문화공간이 되고 있는 지역의 사회와 공간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해 제주사회의 이주민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내외 초지역적·초국가적 이주와 정착 과정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나타나고, 또 구체적인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적 수용의 문제도 장소를 벗어난 추상적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과 장소에서 벌어진다. 따라서 이주와 정착에 대한 연구도 보다 구체적인 지역적 차원에서 이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지역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공간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

주제어 : 이주, 주거지 분화, 해남촌, 지역정체성, 제주도

* 이 글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7-B00371).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부교수

I. 문제제기

1995년 27만 명에 불과하던 국내 90일 이상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단기 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체류외국인¹⁾은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0년 1월 1일 현재 1,139,283명으로 주민등록인구(49,773,145명)의 2.3%에 해당된다(행정안전부, 2010). 제주도의 경우 2009년 말 현재 42개국 7,343명²⁾으로 주민등록인구(562,663명)의 1.3%를 차지했으며, 2009년 대비 5.7%(39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2010).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각종 정책들을 마련해왔으며, 지역의 사회와 공간도 다문화공간³⁾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면, 개발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태어나 자라온 고향을 떠나

-
- 1) 혼인이나 기타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합법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 유학, 결혼 등의 이유로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종전에는 '이주민'이라고 하였으나 2008년 5월 이후부터 '외국인주민'으로 명칭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주민의 범주에 90일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이혼 뒤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자녀도 외국인주민에 포함시켰다.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주민' 개념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통계나 자료 인용 시에는 해당 자료에 충실해 사용하고자 한다.
 - 2)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는 2,56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4.9%, 결혼이민자는 1,164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5.8%, 유학생은 85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1.7%, 재외동포는 252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4%, 기타는 666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9.1%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1,29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7.6%를 차지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2010).
 - 3) 다문화공간 개념은 본래 국가경계를 넘어 고향과 정착지를 연결하면서 양쪽 로컬(local)을 바탕으로 이주민과 정착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빚어지는 융합적, 혼종적 문화와 환경이 형성되는 과정을 강조한 것이다(신성희, 2009: 18). 다문화공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병두(2009)를 참조바람.

다른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와 생활하고 있는 지역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어떠한가? 전지구화와 지방화시대에 다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국가경계는 아니지만 과거 개발과 산업화과정에서 지역을 넘어온 사람들의 정주과정은 어떠한가, 이들은 어떤 지역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초국적 이주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공간이 되고 있는 지역의 사회와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지역사회에서 지역성(locality)와 지역정체성(local identity)을 논의하고 지역사회 수준의 다문화 현상과 다문화적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문제 의식인 동시에 시각이다.

이 글은 지역사회의 이주민, 특히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이라는 경계를 넘어 새로운 지역사회에 정주한 이주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특히, 이 글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역 토박이가 아닌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사회관계 속에 편입되는 과정, 특히 초기 이주민이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향 출신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밀집지역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주목한다. 이것은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 민족별 주거지분화(spatial segregation)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4) 국내 초국가적 이주민들이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한 연구들은 우리사회에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국가별로 자생적인 외국인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지역의 사회와 공간이 원주민과 이주민으로 이원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외국인의 공간분포를 다룬 연구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강경조(2002)와 김은미(2007)가 주목할 만하다.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서래마을(프랑스인 마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리틀도쿄(동부이촌동)', '화교마을(차이나타운)' 등이 생성되어 공동체 활동이 전개되어왔고 이와 맞물려 이들의 지역사회 통합, 외국문화자원의 활용, 관광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신성희, 2009).

논의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이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사회에서 지역문화와 지역정체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다문화공간에서 지역정체성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제는 지역의 구성원이 된 다른 지역에서 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초기 정주과정, 이들의 초기 밀집지역 사례를 살펴봄, 이러한 논의에 기반해 향후 이주민 연구의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추후 다문화의 지역사회에서 지역성과 지역정체성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시론적 논의에 해당된다.

II. 이론적 시각과 연구대상

각 지역마다 지방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조사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생활문화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역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려 주민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마을 만들기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과 그 맥을 같이 한다.⁵⁾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의 지방사연구가 우리의 역사가 대체로 지배층이나 중앙중심으로 연구되었던 점을 지양하고 보완하는데서 비롯되었다면 이제는 지방의 생활문화사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사자료 수집과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공간의 역

5) 이 글의 사례 지역인 제주시 건입동에서도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려 지역민의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사를 내면화시키며 재구성된 지역의 역사는 해당 지역주민의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이지만 '고향 땅을 떠나 새로운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표출될까? 또 출신지나 출신국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다문화공간에서 지역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러한 기본 질문에서 시작해 자신의 출생지를 떠나 새로운 땅에 들어가 살았던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이 글이다.

오늘날 지역연구에서 지역공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용기가 아니라 기존의 사회관계를 반영하며 동시에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생산물로 이해되고 있다(Harvey, 1989). 특정한 사회적 관계는 공간적 관계에 반영되며 그렇게 형성된 공간적 관계는 다음 단계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주거지 분화에 대한 분석은 지역공간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며 사회학과 지리학에서는 주요 연구주제의 하나다.

한국인들의 주거지 이동을 보면 이제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온 장소인 고향에 사는 사람들은 적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학업과 취업 등의 이유로 태어난 곳을 떠나 여러 곳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지 이동은 전지구화와 지방화시대에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주거이동률이 낮았던 산업화 이전 시기에서 지역정체성이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귀속지위(ascribed status)에 속했지만 주거이동률이 높은 현대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지역정체성은 개인이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획득 지위(achieved status)에 속하게 되었다.⁶⁾

6) 현재 한국인들은 태어난 곳과 자라난 곳, 교육받은 곳, 취업한 곳, 결혼하여 사는 곳, 은퇴하여 사는 곳이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

이제 이러한 확고한 개념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은 전지구화와 지방화 시대의 다문화공간에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추명희, 2002; 김준, 2002; 홍석준, 2003; 이윤희, 2002 등)이 지역정체성은 고유하고 특수한 문화적 전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전지구화, 지방화 시대에 정체성은 고정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진행되고 있는 형성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한편,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행동은 사회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공간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재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행동은 사회·공간적으로 구조화되며, 이렇게 해서 구조화된 사회·공간적 체계는 분절적이며 장소-특정적으로 작동한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공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공간은 사람들 간 차이를 만들어낸다(최병두, 2009: 637-638). 이와 관련해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이 글의 분석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Faist(2000)는 이주민이 특정 공간에 집적하게 되는 것은 그 공간이 이주민이 요구하는 사회자본, 즉 특정 목적을 가진 행위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사회구조 속에 자리매겨진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 사람이 소유한 사회자본의 양은 그가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 연결망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문화적·상징적 자본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주민 공동체 내에는 이주민들이 낮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확고하고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로 이주민을 위한 사회자본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에 사람들은 이주와 정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박세훈·이영아·김은관·정소양, 2009: 45; Faist, 2000).

이렇게 하여 나타날 수 있는 주거지 분화 혹은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초기 이주민들은 이주국가 혹은 이주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족 혹은 동향 집단과 함께 거주하면서 밀집지역을 형성하게 된다. 이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경제적 현실과 사회문화적 차별 역시 이주민들로 하여금 집단을 이루게 하는 요인이다. 교외지역의 높은 지가와 차가운 사회적 시선은 결국 이주민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에 집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주거지 분리는 노동시장의 분절화(segmentation)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 혹은 동일 국가 내에서 더 나은 지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대체로 이주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 따라서 초기에는 대개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하위계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내게 된다(박세훈 외, 2009: 50-51).

이러한 이주민 밀집지역은 낙인이 찍힌 슬럼이 될 수도 있고 활력 있는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 이주민 밀집지역이 오명(stigma)을 지닌 장소일 수 있고 활기차고 쾌적한 장소로서의 이미지를 지닐 수도 있는데, 오늘날 지역공간에서는 이러한 이미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간이나 장소가 지닌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여겨지고 판매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⁷⁾이라는 개

7) 장소마케팅은 장소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일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고 함축하는 현상으로,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주체들이 그들의 지역을 기업인이나 관광객, 심지어 그 지역주민들에게까지 매력

념으로 연구되어왔다. 장소마케팅은 그 장소 고유의 이미지와 축제 등을 상품화시키려는 활동도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기업을 유치하는 경제적 효과와 지역정체성을 확립시켜 지역주민들의 정주를 고착시키는 문화적 효과를 양대 목표로 삼는다. 이 양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문화 혹은 역사이다(Ashworth and Voogd, 1990; Kearns & Philo, 1993; 신혜란, 1998; 정근식, 1999; 염미경, 2003). 특히 문화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개발전략에서는 지역이미지 구축이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이는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어떻게 연출하여 특정의 이미지를 생산하는데 성공하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에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역을 특별한 곳으로 표상하기 위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동원하고 이용하게 된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관료에게는 공간이나 장소가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사고, 따라서 관광객이나 기업가 등에게 판매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주민 밀집지역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Leong, 1997; Mak, 2003; Lin, 2005), 우리나라에서도 초국적 이주민 밀집지역은 이러한 공간상품화의 경향에 직면해 있다(한정우, 2008).

최근 초국적 이주와 이주민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과제나 연구들이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가 아닌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나 이주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제주사회를 다룬 이창기의 연구(1999)에서 통계자료에 기반해 인구이동에 관한

적인 곳으로 간주되도록 만들기 위해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를 판매하는 다양한 노력들이다(Kearns and Philo, 1993: 2-3).

개략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⁸⁾ 1960~70년대 제주도로 이주했던 호남인들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1978년까지 12년 동안 1967년, 1968년, 1976년, 1977년, 1978년 등 다섯 차례 한해(旱害)를 입었다. 1967년 8,9월 동안에는 호남지역에서, 1968년 6,7월에는 호남과 영남에서 예년 강우량의 20-30%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60년 만에 겪는 가뭄이었다(한해극복지편찬위원회, 1978: 35; 주희춘, 2008: 314). 큰 가뭄을 겪은 뒤 고향을 떠나 타 지방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되었고 1960~1970년대 어려웠던 시절, 서울, 부산과 함께 전라도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땅'이었던 곳이 제주도였다(주희춘, 2008).

인구는 일차적으로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지만 그 사회의 자연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산물이다. 이와 동시에 인구는 과거의 인구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기 반응하기 때문에 인구현상은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도가 경험한 최근의 역사적 사건들도 또한 오늘의 제주도 인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대량 해외이출(특히 일본)과 1948년 4·3사건, 한국전쟁 기간의 군인 및 피난민 이동과 1960년대 이후의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산업화는 제주도의 인구변동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현상을 매우 복잡하게 하였다(이창기, 1998: 15-16).

전라도 지역 등에서 제주도로 들어온 호남사람들은 제주사회에 밀집지역을 형성해 정주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초지역적 혹은

8) 이창기의 연구(1999)에서는 제주도 인구이동의 방향과 이동인구의 인구학적 특징을 개략적으로 제시해놓고 있어 제주도 이입인구의 인구이동 동기를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주도로의 인구이동의 동기나 이주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초국적 이주자들의 생활공간 혹은 주거지 분화 가능성에 관심이 있는 이 글의 문제의식에 부합된다.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의 밀집지역 혹은 집중거주지 형성에 대한 연구들로는 각각의 분석대상은 다르지만 노동자 주거공동체에 관한 국내 사례 연구(염미경, 1997; 2000; 2001; 2002; 김준, 2005)와 국외 사례 연구(염미경, 2001; 2002)가 있다. 이외에, 철거민집단이주정착지, 세입자이주단지 등에 대한 연구(홍인옥, 2001, 2002, 2004)가 있을 뿐이다. 이 글은 1960년대 이후의 지역개발 및 산업화에 따른 제주도의 인구변동, 특히 이 시기에 제주도로 이주해와 밀집지역을 형성해 살았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즉 개발 열풍이 한창이던 1960, 1970년대 제주해협을 건너 제주도로 이주해온 사람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한 것이 전라도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은 이주 초기에 제주시에서는 제주항 부근 건입동⁹⁾에,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소방서가 있는 서호동 대도 4로 일대에 밀집지역을 형성해 살았다.¹⁰⁾ 이 글에서는 제주시 건입동에 자리했던

9) 제주시 건입동은 제주항이 위치해 있어 제주의 관문이자 각종 문물의 유입과 반출의 거점이 되어 왔던 지역으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생활사를 간직한 곳이며, 제주의 행정 및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나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인해 구 도심권지역의 인구감소와 슬럼화 현상과 함께 침체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 글의 구체적인 연구대상 지역이기도 한 건입동은 2008년 현재 면적 2.53km², 인구 1만807명의 지역으로, 북쪽이 제주해협에 접해 있어 제주해협을 건너 제주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부두의 허드렛일을 하면서 머물러 살다가 밀집지역을 형성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10) 제주사회의 이주 지역민으로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인의 수는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호남향우회 소속 회원이 5만 명 정도, 그 가족까지 합하면 제주도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수준에 이른다(호남향우회 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 결과). 이러한 호남인에 비해 영남인의 경우는 초기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제주사회로 이주해왔고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살지도 않았다. 제주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영남인의 수는 영남도민회 추산 회원 수는 5천 명 정도이며 제주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호남인에 비해 크지 않다(영남도민회 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 결과). 그 외에 제주사회 거주하고 있는 이주 제주인은 서울경기향우회 500명, 전북도민회 450명, 강원도민회

‘해남촌’의 형성과 해체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고찰에 기반해 최근 초국가적 이주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제주사회 이주민 연구의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대체로 주거공동체는 높은 지역성, 강한 공동의 유대감, 빈번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공동체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역공동체이다. 이주해와 정착한 지역민이 지연을 바탕으로 해 형성한 집단거주지도 이러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구성원의 유대감과 상호작용, 지연적·지리적 공동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이후 이들의 삶의 여건의 변화나 개발로 인해 집단거주지를 떠나면서 쇠퇴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국제이주가 증가하면서 등장한 지역사회의 다문화화에 따른 공간의 분화 혹은 주거지 분화를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간 이주와 국가 간 이주를 동일선상에 두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출신배경과 문화를 지닌 이주민들의 통합과 향후 지역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자료, 특히 향우회 발간 정기간행물과 단행본 및 통계자료, 행정기관의 자료, 인터넷검색자료, 관계자들과의 심층인터뷰자료를 사용하였다.

300명, 충청향우회 20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제주특별자치도청 내부자료).

Ⅲ. 제주도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1. 제주도 개발과 인구성장

한국의 지역개발은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연관된 국가의 총체적 지역계획의 일환이었고 경제개발을 공간적 측면에서 보조해 주기 위해 정부 주도로 수행되어 왔다. 제주도 개발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경제개발과 발맞추어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제주도 개발은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고 지역의 발전보다는 한국의 산업화와 자본축적의 보완수단의 성격이 강했으며 관광을 중심으로 하였다.

한편, 제주도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은 국제자유지역 조성, 관광개발, 산업개발이라는 세 가지의 큰 틀 속에서 추진되었으며¹¹⁾,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거나 유보되었다. 국제자유지역 조성은 1963년 자유항 설정 구상을 시발로 하여 1975년 '특정자유지역 개발구상', 1983년 국제자유지역 조성을 중심으로 한 종합개발계획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다. 관광개발계획은 제주의 개발을 주도해 온 분야이다. 제주도가 관광산업을 분업적으로 떠맡게 된 것은 부존자원의 결여와 시장의 격리라는 제주도의 여건으로 인해 2차

11) 이것은 제주도가 주관하고 국토개발연구원이 총괄해 수립한 1983년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이었으며 이 안은 1982년에서 2001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며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83년의 안은 국내의 개발 여건이 불투명한 데다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 의해 수정되게 된다. 1984년에 경제장관협의회에서 국제자유지역 조성은 보류되고 국민관광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기로 개발방향이 조정되었다. 이후 건설부 주관 하에 국토개발연구원이 전담하여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이 1985년에 확정된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다(이상철, 1998: 107-108).

산업 육성이 거의 불가능하고 1차 산업 중에서도 논농사를 짓기에는 토질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농업에서는 기후 차이, 토질 차이, 지리적 격리를 이용한 감귤 중심의 환금작물 재배에 치중하며 3차 산업에서는 관광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었다. 산업개발계획은 관광개발을 위한 보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이상철, 1998: 104-105). 제주도 개발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가 제주도의 지역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63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¹²⁾되어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부터였다. 1966년에는 역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제주도 전역이 특정 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특정지역계획이 작성되었다. 이 계획은 기본 방향을 국가적 차원에서 상대적 낙후지역인 제주도의 경제·사회적 성장을 뒷받침해 줄 국토개발사업의 우선순위 반영과 지역 내 부존자원 개발에 의한 지역격차의 시정에 두었으며 1967~1996년까지 30년 동안의 개발 및 정비목표를 관광지 조성, 농업개발, 수산개발, 수자원개발, 교통시설 개선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1970년대 이후 관광개발의 거점화가 제주도개발의 기본 방향이 되면서 제주도는 관광주도형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데 두어졌는데, 1973년 청와대 관광기획단 주도로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1973~1981)’¹³⁾이 수립되면서 지역개발이 본격화되었고, 국제

12) 이 법에 따라 건설부는 1964년에 ‘제주도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개발의 기본방향을 관광과 1차 산업을 병행 발전시키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두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투자의 과중한 부담 등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지 못해 지면계획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향후 중앙정부의 제주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13) 이 계획은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목표 하에 관광기반시설 재정비, 중문관광단지 개발, 감귤·축산·토산품 등 관광 관련 산업 육성 등 관광자원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제주도 관광

자유도시 조성과 산업 개발은 제주도 개발을 이끌어온 또 다른 축이다. 특히 1970년대의 제주도 지역개발¹⁴⁾의 기본 방향은 관광개발의 거점화로 하고, 모든 산업을 관광주도형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데 두어졌는데, 이것은 1973년 청와대 관광기획단에 의해 수립된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1973~1982)'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는 자연 및 사회·경제적 입지조건과 경제활동의 결절성을 고려하여 관광기능을 제주도 지역의 중심기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1970년대의 제주 지역개발정책은 국제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관광개발에 편향되어 전개되었다. 제주도의 관광개발은 1980년대 초 정권이 바뀌면서 급류를 타기 시작했는데, 1981년에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이 수립된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지침에 따라 1980년대의 제주지역개발은 추진되는데, 이 계획에 기반해 제주지역은 1985년에 '제2차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을 수립하고 개발 기초를 부존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소득 증대와 지역성장을 촉진하는 것에 두었다. 이 계획은 한국 경제사정의 악화, 제주사회 자체의 여건 미비·불비 등으로 인해 1984년 경제장관회의에서 개발 유보 결정이 나면서 국제관광지화에서 국민관광지화로 개발계획이 축소·조정되었다. 이러한 제주개발계획의 축소 조정은 1985년 건설부 주관의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과 건설부 계획과의 연계 하에 제주도 주관의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을 확정지으면서(제주도동

개발의 신표탄으로 평가된다(김태보, 1989; 이상철, 1995).

14) 한편, 1972년에는 이러한 특정지역계획의 보조적 성격을 지닌 제주도종합개발10개년계획(1972~1981)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에서 개발의 기본방향을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에 두어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조성하려는 취지를 확고히 하였지만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문제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상담소, 1992: 50) 제주 개발정책은 국민관광지화를 기치로 제주도 전역에 대한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제주도 개발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맞맞춰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63년 제주도건설개발연구위원회가 설치돼 1964년 건설부 주관으로 특정지역 지정 겸 건설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조사가 실시됐다. 1966년부터 제주도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산업이 개발되고 용수, 도로, 동력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었고 1970년에는 ‘제주도종합개발10개년계획’이 수립돼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사업을 국가적 우선순위에 반영하게 되었다. 1973년에는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돼 9년 간에 걸쳐 집중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 각 항구의 물동량도 폭증했다. 제주항을 통해 이뤄진 제주~목포, 제주~부산 간 여객선 여객 수송규모는 1972년 31만5천 명에서 1979년 71만5천 명으로 늘어났고, 화물수송은 1972년 9만6천800톤에서 1979년 16만6천 톤으로 증가했다(제주지방해운항만청, 1979; 주희춘, 2008: 333-334). 이 기간 동안 농업구조도 변화되어 1961년 총 재배면적의 94.1%를 차지해 자급적 농업을 대변하던 식량작물의 비중이 1982년까지 46.7%로 급감했다.¹⁵⁾

이렇게 하여 1960년대 후반 들어 제주도는 개발 붐이 일어났고 밀감산업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15) 식량작물의 생산량도 85.8%에서 31.7%로 떨어졌다. 대신 특용작물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 감귤의 재배면적이 1961년 0.3%에서 1982년 21.6%로 늘었고 생산량도 0.3%에서 47.9%로 급증했다. 즉 1961년 서귀포를 중심으로 63정보에 불과했던 감귤밭은 1969년 3천126정보로 늘어났고 1972년도에는 6천955정보로 폭증했다. 1975년에는 1만930ha, 1984년에는 1만6천900ha가 됐고 2004년에는 2만2천ha로 증가했다(주희춘, 2008: 335).

1960, 70년대 제주도의 이입인구는 증가하게 된다. 제주도의 1965년도 인구는 32만명에 불과했다(제주도, 1970). 1960년대 초반부터 1960년대 말까지 각종 건설사업과 관광개발로 제주도 이입인구가 늘기는 했으나 1970~1975년까지 많은 인구유출이 있었다(이창기, 1999). 전남지역 등에서 사람들이 제주도로 들어갈 때 제주도사람들은 제주도를 떠났다고 볼 수 있다¹⁶). 즉 제주도 토박이들이 다른 지역을 향해 제주도를 떠난 뒤에 남은 제주도 토박이들과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제주도 개발을 담당한 셈이다.

대체로 인구이동은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기별로 변화가 심하고 이동의 양과 방향에 있어서도 다양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제주도의 인구이동도 정부의 지역사회개발사업, 우리 사회 전체의 산업화와 도시화 등에 영향을 받아서 시기별로 이동추세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창기, 1999: 85). 이 글의 연구범위와 관련해 1960년대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입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를 중심으로 제주도 인구성장률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초는 제주도 인구가 이입 초과를 경험했던 시기이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주도 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외지인들이 제주도로 유입되는데(이창기, 1999: 88). 1960년대 이후 제주도 인구성장률은 전국평균치를 훨씬 상회하였다. 1960~1966년의 제주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3.10%로 전국의 인구성장률 2.79%보다 0.31%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의 제주도 인

16) 물론, 제주도를 떠난 사람들도 대부분 고향에서 별다른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1970~1975년 사이에 제주지역을 떠났던 3만4천48명의 사람들 중 서울로 떠난 사람이 1만5천600여 명으로 전체 전출자의 46%에 달했다. 부산이 3천686명으로 10.82%였다(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7).

구증가는 고출생률의 지속과 제주도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른 이입 인구 초과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이창기, 1999: 39). 1960년대 초의 각종 건설사업과 관광개발사업에 따라 많은 외지인이 제주도로 몰려들게 되었고 이러한 인구이입이 또한 제주도 인구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초의 제주도 인구이동에 관해서는 통계자료가 없어서 그 추세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당시의 출산력 수준을 고려할 때 1960~1966년의 제주도 순이입인구는 약 7,7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이창기, 1999: 40). 1965년 이후 5년간 총 이입인구가 15,000명 정도이던 것이 1970년 이후에는 20,000명을 넘어서고 1985년 이후에는 3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 이출인구에 있어서도 1960년대 후반 12,000명 정도에서 1970년 이후에는 대체로 3만 명을 초과하였다. 즉, 1970~1975년의 제주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7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출산율 수준이 높지 않았고 대량 이출초과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성장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이입인구 초과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창기, 1999: 39-40, 42-43, 89). 따라서 총이동량도 197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60년대 후반에 5년간의 총이동량이 2만7천 명 정도이던 것이 1970년 이후에는 대체로 5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1985년 이후에는 6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의 이동이 전쟁이나 개발사업의 추진 등과 같은 특수 상황에 의해 제주도의 인구이동이 주도되었다면, 1970년대 이후에는 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이출요인), 그리고 내적으로는 제주도 농업의 특수성과 관광개발(이입요인)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제주도 인구의 유동성이 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이창기, 1999: 89).

1960년대 이후 제주도의 출생지별 인구구조를 통해 제주도 인구의 성격을 살펴보면 1960년 95.4%, 1970년 93.7%, 1980년 88.8%,

1985년 86.9%, 1990년 84.9%로 제주도 출생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주도 이외의 지역 출생 제주도 지역민의 출생지 분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가장 많아서 1970년과 1980년에는 타 지역 출생자의 40%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표 1> 참조). 이 시기에 광주·전남지역 출생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제주도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광주·전남지역에서 충원한 결과로 보이며, 이 시기 제주도 이입인구 중에서 단순노무직과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던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광주·전남 이외 지역의 출생자로서는 부산·경남지역과 서울지역 출생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창기, 1999: 91-93).

<표 1> 제주도 이외 지역 출생 제주도 지역민의 출생지 분포

(단위 : %)

연도	타도 출생자계 (실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기타
1960	100.0 (12,912)	4.2	3.2	1.1	0.8	1.4	2.4	29.9	2.1	8.0	46.9
1970	100.0 (26,803)	6.8	4.0	2.4	1.8	4.4	6.0	42.2	5.4	11.9	15.1
1980	100.0 (51,017)	8.8	3.9	3.4	2.3	4.9	5.4	42.9	5.9	12.0	10.6
1985	100.0 (64,018)	11.4	5.5	3.3	2.4	5.2	5.7	37.0	7.0	15.0	7.6
1990	100.0 (76,356)	11.7	6.1	3.5	2.2	5.8	5.2	34.8	7.9	17.3	5.5
1995	100.0 (80,314)	14.2	8.1	3.7	2.4	5.1	5.1	29.3	7.7	18.3	6.1

주 : 기타에는 북한지역 출생자와 외국, 미상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이창기(1999: 92)에서 재인용.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제주도 이입 인구는 광주·전남과 부산·경남 그리고 서울지역으로부터 주로 유입되고 있다. 이 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는 전체 이입인구의 약 7할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광주·전남지역으로부터 이입되는 인구가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이러한 이입인구의 지역분포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광주·전남지역으로부터 이입되는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 대신에 서울지역이나 부산·경남지역으로부터 이입되는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1990년대 초반에는 광주·전남지역의 비율이 10% 정도로 떨어지고 그 대신 인천·경기 지역이 15%를 상회하고 제주도 인구의 주로 유입처로 부상하게 된다(이창기, 1999: 95).

<표 2> 제주도 이입인구의 지역분포 (단위 : %)

연도	타도 출생자계 (실수)	서울	인천 경기	강 원	충 북	대 전 충 남	전 북	광주 전남	대 구 경 북	부산 경남	기타 (외국)
1965-70	100.0 (14,925)	15.7	5.7	3.1	1.5	4.3	5.4	36.8	8.5	16.7	2.3
1970-75	100.0 (20,056)	19.9	6.7	3.5	1.4	3.1	4.5	38.1	4.5	16.6	1.7
1975-80	100.0 (21,474)	23.4	5.2	3.0	1.2	4.0	3.4	28.5	6.5	16.4	8.4
1980-85	100.0 (25,421)	30.6	8.8	3.0	1.3	3.6	3.5	17.4	6.7	22.5	2.6
1985-90	100.0 (29,107)	29.0	10.3	3.6	1.1	4.2	3.1	15.9	7.5	23.8	1.5
1990-95	100.0 (32,124)	28.4	15.3	2.3	1.5	2.6	3.3	10.3	5.9	25.5	4.9

자료 : 이창기(1999: 95)에서 재인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제주도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항만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개발이었다. 따라서 곳곳에 막노동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겼고 제주도의 관문 제주항은 10여년 이상 날뎠을터가 끊이지 않았다. 제주도로 들어온 전라도 사람들은 이러한 막 일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찾아갔는데, 제주항에는 서귀포에서 재배된 감귤이 육지로 운송되기 위해 줄을 지어 도착했고 당연히 짐꾼이 필요했다. 따라서 제주도에 들어온 전라도 등 호남에서 온 사람들은 상당수가 제주항 주변에 모여 살며 매일 지게꾼 일을 했다(주희춘, 2008: 336). 이렇게 하여 1960, 1970년대 제주항 주변에 판자촌이 들어서기 시작해 전라도사람 밀집지역이 형성되게 된다.

2. 전라도인의 이주와 밀집지역의 형성: 해남촌의 사례

먼저 전라도사람들이 제주도 이주를 선택한 배경과 경로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도는 국가 중심부에서 가장 원거리에 있는 최고주변부로서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개발과정 속에서 지방사회구조의 변동을 경험했고, 제주도 출생자들에게는 떠나고 싶은 곳이었던 반면, 개발이 시작되면서 전라도 등지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땅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에는 지리적 조건이 작용하였는데, 제주도는 총면적 1,847.78km²로, 대한민국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제주해협을 사이에 두고 목포와는 154km, 부산과는 304km, 완도와는 104km 떨어져 있다. 목포는 또한 전라도 서남부지역 사람들이 제주도로 들어가기 위해 집결했던 집결지이기도 했는데, 전라도 서남부지역 사람들이 제주도로 들어가는 뱃길은 목포~벽파진~추자도~제주 노선이 유일했다. 해

방 당시 제주~목포 항로에는 광영호, 춘광호, 남신호, 경영호, 신광호 등이 운항되고 있었으나 이 선박들은 모두 소형 목선이어서 1950년대부터는 미군수물자 수송선을 개조한 철선 평택호(5백톤)와 이리호(5백톤)가 목포~제주~부산을 연결하는 삼각항로에 취항하게 되었다. 이때 제주~목포 간을 3일마다 왕복하던 신광호는 1953년 7월에 제주~여수 간 항로를 취항하였다(황경수, 2004: 263-264; 제주도, 1993: 1108). 이때만 해도 해상교통은 선박은 작은 데다 시설이 낡고 속력이 느린 관계로 기상영향을 많이 받아 결항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1963년 8월 12일에 가야호를 시작으로 1968년 4월에는 안성호, 1969년에는 삼화호, 1970년에는 나일호, 1973년에는 동원호가 잇따라 취항함으로써 제주~목포 간 1일 2발제 운항이 실현되었는데, 당시 운항시간은 8시간이었다(황경수, 2004: 264). 현재는 완도~제주 뱃길이 일반화됐지만 완도~제주 간에 정기여객선이 처음 취항한 것은 1979년 4월 17일의 일이었다(제주지방항만청 자료). 그 이전에 강진, 해남, 완도, 장흥, 영암지역 사람들이 제주 배를 타기 위해서는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진이나 목포17로 와야 했다. 전남 진도군 벽파진에서 배를 타면 완도 앞바다를 거쳐 거의 직선항로로 추자도에 이르고 제주도에 가장 빨리 도착했다. 특히, 근대 들어 벽파진은 제주나 부산으로 가는 뱃길의 중심지였다(주희춘, 2008: 301-302).

17)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배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철선이 선을 보인 것은 1948년 해방 이후였다. 제주상공회의소에 의하면, 당시 목포~제주 노선에 가장 먼저 취항한 것은 1955년 1월 8일부터 항해를 시작한 '황영호'였다. 그 다음으로는 1958년 9월 6일 '화양호'가 운항을 시작했다. 또한 1963년 8월 13일에 '가야호'가 선을 보였다. 목포~제주를 운행했던 최초의 철선은 1948년부터 1954년까지 목포~제주~부산을 운행했던 '이리호'와 '평택호'였고, 이 코스를 '무지개항로'라고 했다. 1957년도 배 해상운임은 목포~제주 간에 3등 1천 224환, 2등 1천835환이었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55).

특히, 전라도 서남부지역 사람들이 제주도로 들어가는 뱃길은 목포~벽파진(진도)~추자도~제주 노선이 유일했다. 현재는 완도~제주 뱃길이 일반화됐지만 완도~제주 간 정기여객선이 처음 취항한 것은 1979년 4월 17일의 일이었다. 그 이전에 강진, 해남, 완도, 장흥, 영암지역 사람들이 제주배를 타기 위해서는 벽파진이나 목포로 와야 했다. 보성이나 순천 등 전남지역 동부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목포로 가서 배를 타는 경우가 많았고, 구례나 곡성, 담양사람들도 버스를 이용해 목포로 가서 배에 오르는 게 일반적인 행보였다(제주지방해운항만청, 1989; 주희춘, 2008: 296).

전라도 등 호남지역 사람들이 제주도로 이주하기 이전의 제주도는 지리적 협소성과 자원의 한정성으로 먹을거리가 부족했고 제주 4·3사건 등 역사적 어려움도 많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 후반 들어 제주도는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1960~1970년대 전라도지역의 농촌이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면 제주도는 정부의 개발정책이 추진되면서 희망의 땅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제주도 지역 곳곳에서 개발 붐이 일어났고 제주도 지역 최대 농산물이 감귤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였다(주희춘, 2008: 324-331). 따라서 노동력이 필요했지만 1965년도 제주도 인구는 32만 명에 불과(제주도, 1970)하는 등 섬 지역이었던 제주도의 인구는 매우 한정돼 있었다.

한편, 국가 주도의 관광개발과 특작농업의 성공, 농촌근대화 열풍이 불어 1960~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농이 본격화하던 시기에 제주도는 서울, 부산 등과 함께 전라도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땅’이었다.¹⁸⁾ 특히, 전라도지역에서 와 제주도에 정주한 사

18) “제주도에 가면 일단 먹고살 게 많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한 사람이 제주로 들어가면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다시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형태였습니다.”(진도군 고군면 벽파진항 여객선 대합

람들은 대부분 제주도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주해온 사람들로서 이주 초기 집단거주지(‘전라도동산’ 혹은 ‘해남촌’)를 이루어 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 이입인구의 지역분포는 이출인구의 지역분포와는 상이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초반까지 제주도로의 전입인구의 4할 가까이를 공급하던 광주·전남지역이 제주도 이출인구의 전출지로서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이출인구 중에서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출한 인구는 약 10% 또는 그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광주·전남지역은 제주도의 인력 공급처로서 기능하였을 뿐 전출지로서의 기능은 매우 약했다(이창기, 1999: 96).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하여, 다음에서는 제주사회에 들어온 다른 지역 출생자들이 초기 정착하면서 형성한 밀집지역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도와 전라도는 타 지역에 비해 지리적 거리의 근접성, 특히 한반도의 다른 지역들과 교류할 때 가장 많이 애용한 전통적 바닷길과 가장 근접한 연안이었다. 더욱이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가 실시되면서 제주도(濟州道)로 분리되기 이전 일정기간 동안 제주도는 전라도권역 내에 있었다. 1960~1970년대 제주도로 들어갔던 호남인, 특히 전라도사람들이 제주사회에서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약 40여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제주도라는 낯선 섬에 들어가 그곳의 문화에 적응하고, 경제생활을 해서 일정한 부를 축적하기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다(주희춘, 2008: 337).

농사짓기에 실패하여 바다를 건너온 전라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마을이 ‘해남촌’이며, 전남 해남 출신 사람들이

실에서 상점을 운영했던 김 할머니의 이야기; 주희춘, 2008: 295-296).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일거리를 찾아 제주시내와 서귀포, 성산포, 조천읍 등 조금 이름이 알려진 지역을 향해 떠났다. 마을로 곧장 들어가 그곳에서 평범한 머슴살이부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다. 제주시 사라봉 부근에 1960~1970년대 들어 허름한 판자촌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해남촌'의 형성¹⁹⁾이다. 겨우 2~3평의 판잣집은 처음 한 두 채로 시작되더니 조금씩 늘어나 200여 채까지 빼곡히 들어찼다. 제주항에 도착해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한 전남 사람들이 막일거리가 있는 부두와 가까운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곳은 처음에 비교적 평지였던 제주항 부두 옆에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그 숫자가 많아지면서 1970년대 들어 사라봉 아래까지 세를 뻗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생활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1980년대 중반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이주명령이 떨어지게 된다(주희춘, 2008: 337-343). 다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주시 건입동에 자리했던 '해남촌'의 형성과 해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시에 있었던 '해남촌'은 대다수가 전라도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집력이 강했으며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운수업 등에 종사하였다. '해남촌'에 거주한 사람들은 '해남촌'을 정착지로 여기기보다는 일반 경제적 상향 이동을 위한 경유 거주 지역으로 여겨 해남

19) 이들이 서귀포 지역에 도착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형성된 서귀포시에 있었던 '해남촌' 자리는 현재 서귀포시민회관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는 곳이지만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적한 곳이었고 빈민가나 마천가지였다. 그 곳에 196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호남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가 살기 시작했고 초창기에는 해남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였지만 전라도사람들이 끌고루 살게 된다.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100가구가 훨씬 넘었다(주희춘, 2008: 343-344). 현재 서귀포시의 '해남촌'은 거의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1960~1970년대 '해남촌'에 들어가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막일과 보따리장수 등을 하면서 돈을 모아 생활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이주했고 상당수는 적지 않은 재산을 모으기도 했다.

로 귀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였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 이익과 친선을 공동으로 도모하는 지연공동체를 형성하였는데, 호남동지회를 조직하여 전라도 출신들 간의 친선과 회원 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제주도에 정주해나갔다. ‘해남촌’은 1979년 신산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계획이 확정되면서 1980년대 중반에 제주항동부두의 ‘해남촌’ 주민들은 일도2동에 ‘신산머루’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이들은 이후 ‘해남촌’을 벗어나 제주도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정착하게 된다(주희춘, 2008; 황석규, 1985).

당시 ‘해남촌’에 대한 기억을 한 전라도 출신 지역민의 구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호남향우회 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결과, 인터뷰 일자 2010.6.22).

“해남촌 분위기는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안 좋았어. 다들 어려운 시기였어. 창피한 얘기지만 집들이 다 이렇게 붙어있어 싸니까 개별적인 화장실 같은 게 없었어요. 집집마다 공중화장실을 해놨어. 여러 세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줄을 서고.. 어렵게. 그때가 7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1980년대 접어들면서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어. 주위에 아파트들도 생기고, 신제주도 생기고, 지금 옛날에 ‘해남촌’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촌 정도가 아니고... 삶이 삶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니, 공중화장실을 만들었다니까요. 바로 길가에다가. 지나가면 냄새가 났죠. 전부 재래식이었고. 그러는 것이 참 몰직한 삶이었을 거야. 이와 같은 시절이.. 이제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다음에 빌딩이 막 3층 4층 들어서고... 그때 길이 꼬불꼬불한 샛길이었어. 여인숙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흔적이 없어. 전부 길 뚫어져가지고, 그 건입동 사무소에서 올라가는 길 있지? 옛날에는 그 길이 겨우 사람 다니는 길이었어.”

이후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해남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사라봉을 중심으로 볼 때 서쪽에 있는 제주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에서 이곳을 보면서 빈민촌이 제주도 입구에 있다며 제주도의 관광지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주도 차원에서 ‘해남촌’ 사람들을 이주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주희춘, 2008: 341-342). 1차 이주는 1970년을 전후해 이루어졌다. 제주시는 이들에게 일정한 이주 비용을 보상해주고 지금의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거처를 옮기도록 했고 2차는 1980년을 전후해 진행되었는데 2차 이주 때는 제주시 화북동 주변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많았다. 현재 과거 ‘해남촌’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아파트 후문까지 100여m의 거리가 과거 ‘해남촌’이 있었던 장소이다.²⁰⁾

현재 과거 ‘해남촌’ 자리는 인가와 아파트단지, 체육공원,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고 보상 문제가 풀리지 않은 집 자리 몇 채만 남아 있을 뿐²¹⁾ 과거의 ‘해남촌’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사진 1]과 [사진 2]²²⁾ 참조).

20) 필자가 인터뷰한 ‘해남촌’ 인근에 사는 제주도 토박이들도 이 일대가 ‘해남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아직까지 10여 가구 남짓의 전라도사람들이 살고 있다.

21) 앞으로 ‘해남촌’의 형성과 해체 등 이주민이 생활터전과 생활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이것은 필자의 연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22) [사진 1]과 [사진 2]의 출처는 한승훈의 제주이야기(<http://cafe.daum.net/jejuminyo>)에서 인출하였음을 밝혀둔다.



[사진 1] '해남촌' 자리에 들어선 아파트와 '해남촌'에서 제주항 부두로 내려가는 길



[사진 2] '해남촌'의 자취가 남은 골목

이같은 '해남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제주시 건입동에서는 역사를 자원으로 한 마을 만들기가 한창이다. 즉 이 지역에서는 2007년부터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박물관마을 만들기 사업²³⁾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건입동지역에 산재해있는 역사, 문화유적 등의 발굴과 재정비를 통해 건입동 지역 전체를 야외 박물관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 속에는 '해남촌'의 역사나 '해남

23)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박물관마을만들기협의회'이다. 이 협의회는 건입동 주민센터, 9개의 지역민간단체, 살기좋은마을만들기팀 등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촌' 사람들의 애환이나 생활사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²⁴⁾

IV. 맺음말 - 제주사회 이주민 연구의 과제

이 글은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다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정체성 문제를 모색해보기 위한 시론적 논의이다. 제주도 개발과정에서 자신의 출신지를 떠나 제주도로 들어온 사람들의 초기 밀집지역의 형성과 해체를 사례로 해, 다양한 출신의 이주민들이 공존하는 지역의 사회와 공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 글이 다문화사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계를 넘어온 초국적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문제가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민으로 뿌리를 내린 과거 지역개발 시기 자신의 출신지를 떠나온 초지역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할 때 초국적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성 및 지역정체성 형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도 사람들의 초기 정착지 '해남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문화공간의 등장과 주거지 분화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24) 이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등과 같은 적극적인 장소마케팅 전략과 배치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산업도시들에서는 좋지 않은 과거의 지역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러한 지역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장소마케팅 전략이 확산되었다. 이것은 철거되어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어왔던 과거 산업시대의 유산이 지역의 역사와 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자산임은 물론 지역의 관광개발 자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을 그 배경으로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03)을 참조.

고 본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반해 제주사회 이주민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 글을 끝맺을까 한다.

국제이주와 정착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의 문제점은 대체로 공간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우리사회 전체를 하나의 분석적 단위로 설정하여 외국인들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한국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주로 관심이 있다. 그러나 국내 혹은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나타나고, 또 구체적인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적 수용의 문제도 장소를 벗어난 추상적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과 장소에서 벌어진다. 따라서 이주와 정착에 대한 연구도 보다 구체적인 지역적 차원에서 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지역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공간에 대한 관점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디아스포라²⁵⁾라는 시각에서 고향 땅을 떠나 새로운 땅에 정착하면서 지역사회 하층민으로서 이주지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집단거주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것은 다문화공간에 대한 연구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이주민의 디아스포라의식은 정착한 사회 혹은 범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과정인 동시에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Portes,

25) '디아스포라'는 용어는 단순히 범민족성(transnationality)과 이동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적인 배제의 맥락에서 지방적인 것의 정의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을 나타내는 기호가 될 수 있다(정근식·염미경, 2000; Clifford 1994). 이와 관련해 클리포드(1994)는 디아스포라 집단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류 집단과 교섭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주한 땅의 토박이들과 다른 성향을 지님으로 인해 서로 대립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1995).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과 산업화 초기 제주도 농어촌사회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물론 한국사회 이농, 특히 국민 국가 내 지역 간 이주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초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출신지 문화가 공존하면서 새로운 지역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것은 초국적 이주를 배경으로 형성되고 있는 다문화공간에서의 지역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개발 열풍이 한창이던 1960~1970년대 제주해협을 건너 제주로 이주해 들어가 정착한 제주사회 내의 한 층위로 성장한 이주 지역민이 전라도 등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개발과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제주도를 선택한 다른 지역 출신자들이 제주도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정리할 때가 됐다. 이것은 국제이주지로 제주도를 선택한 초국적 이주민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이외의 한반도 내 모든 지역을 '육지'라고 부르고, 구별하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세계의 사회·문화 간 상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1990년대 말 지역자료의 수집과 발굴, 정리의 활성화가 강조되던 분위기에서 한 단계 진전하여, 전체사와 지역의 역사는 통일된 관점에서 지역의 내재적 발전과 외부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재생시키는 기반이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공존해 살아가는 터전으로서 지역사회의 수용성은 커질 수 있다. 물리적·공간적 근접성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안의 사회·심리적, 문화적 거리감을 없애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는 장소의 공유와 과거에 대한 기억의 공유를 통해 자신

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 유지시킨다(홍석준, 2003: 89).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의 경우 주민들은 사는 장소는 공유하고 있어도 과거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공간에서 집단 정체성의 의미는 그것이 다른 어떤 층위들과 어떻게 접합되느냐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다문화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출신 지역의 다양성 혹은 거주기간의 다양성으로 인해, 또는 민족·종족이나 국적의 다양성으로 인해 다수의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주민들은 다수의 지역정체성으로 인해 공유된 역사와 문화에 기초한 지역의 정체성은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쟁점들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다문화공간의 주민들이 어떤 지역을 만들고 싶은가에 따라서 다문화공간에서 지역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지역정체성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지구화, 지방화 시대에 지역은 더 이상 고정되고 본질적인 개념이 아니며 지역의 정체성도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 지역에 기초하기보다는 어떤 지역을 만들어갈 것인가, 주민들이 어떤 지역이길 원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와 접합되어 상황에 따라서 응집되고, 분산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것으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주민들이 동원할 수 있는 문화적 기제로서도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윤택림, 2008: 339-340). 따라서 우리는 전지구화시대에 세계성과 지역성 간의 새로운 접합 경향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미 지역민으로 뿌리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초지역적 이주민들에 대한 관

심과 연구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향후 정책적 함의와 연구방향을 찾아보기로 한다. 외국인의 증가추이, 유형별 분화현상, 공간분포 경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점차 외국인의 정주화현상이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의 정주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수준에서 사회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 때 향후 민족별 주거지 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박세훈·정소양, 2010: 72). 제주도의 경우 국가경계를 넘어온 이주민들이 집중 거주지 혹은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찾기 힘들다. 즉 시각적으로 확연히 검증되는 밀집지역 혹은 주거지 분화로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지역사회의 주민을 결혼이민자, 노동이주자로 양분하여 배려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최근 국제이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이주민 연구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초기 지역개발과정에서 자신의 출신지를 떠나온 제주사회 이주민의 밀집지역의 형성과 해체 사례를 개략적으로 다루었다. 밀집지역 형성으로 인한 주거지 분화에 대해 이주민들의 생애사 분석 등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야 했는데 개략적인 논의에 그쳤으며, 국내이주자와 국외이주자 사이에는 인간관계 및 거주자 분화에 차이가 존재할 것인데 이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데 이 글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이나 논의는 필자의 연구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개발과 산업화과정에서 자신의 출신지를 떠나 서울이 아닌 또 다른 지역사회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이주동기와 경로, 그리고 지방사회 제주사회에서의 초기 정착 경험과 생활세계,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 등에 대한 보다 체

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적절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나 지역사회가 단일성을 강조할수록 그 국가나 지역 내 다양한 집단의 차이는 억압될 수 있다. 태어났던 고향을 떠나 새로 정착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 지역민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인정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진정하게 다문화사회가 되는 길일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강경조, 2002, 서울시 외국인 거주에 관한 공간 분석,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7, 1975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경제기획원.
김태보, 1989, 제주도 종합개발의 발전적 보완과 추진방안, 사회발전연구, 5호, 233-249.
- 김은미, 2007, 서울 내 외국인 문화활성화 방안, 서울정책포커스, 제26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13.
- 김준, 2002, 지방자치와 지역정체성의 형성: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만들기, 경제와 사회, 통권 53호, 한국산업사회학회(비판사회학회), 36-62.
- _____, 2005, 잃어버린 공동체? 울산 동구지역 노동자 주거공동체의 형성과 해체, 경제와 사회, 통권 68호, 71-106.
- 박세훈·이영아·김은란·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I), 국토연구원.
- 박세훈·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제64권, 59-76.
- 신성희, 2009, 인천시 다문화 분포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신혜란, 1998, 태백, 부산, 광주의 장소마케팅전략형성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염미경, 1997, 기업도시의 선거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31집 3호, 한국사회학회, 563-594.
- _____, 2000, 도서지역의 활성화와 정체성 정치, 한국사회학, 제34집, 한국사회학회, 747-782.
- _____, 2001, 일본의 철강도시, 경인문화사.
- _____, 2002, 기업도시의 통치, 도시체제, 그리고 성장정치, 경제와 사회, 제53호, 한국산업사회학회(비판사회학회), 119-143.
- _____, 2003, 지방산업도시 성장정치의 현재와 미래, 경제와 사회, 제60호, 한국산업사회학회, 67-100.
- _____, 2009, 산업유산과 도시만들기, 지역사회학, 제10권 1호, 지역사회학회, 95-115.
- 윤택림, 2008, 과천 신도시의 주민되기,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1권 2호, 역

- 사문화학회, 307-345.
- 이상철, 1995,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태도의 변화, 제주도연구, 12집, 제주학회, 71-114.
- _____, 1998,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신행철 외 저, 제주사회론2, 한울아카데미, 99-136.
- 이윤희, 2002, 인천 시민의 지역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 창간호, 9-32.
- 이창기, 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출판부.
- 정근식·염미경, 2000,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 재외한인연구, 9호, 재외한인학회, 237-280.
- 정근식, 1999, 지역활성화와 정체성의 정치, 이해의 정치, 사회와 역사, 56권, 한국사회사학회, 79-120.
- 제주노동상담소, 1992, 일하는 사람들.
- 제주도, 1970, 제주도통계연보.
- _____, 1993, 제주도지, 제2권.
- 제주상공회의소, 2000, 제주상의 65년사.
- 제주지방해운항만청, 1989, 제주지방 여객 및 화물수송 추세.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2010, 2010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10.2.1~3.31).
- 주희춘, 2008, 제주 고대항로를 추적한다, 주류성출판사.
- 최병두, 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으로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5권 제5호, 한국지역지리학회, 635-654.
- 추명희, 2002, 역사적 인물을 이용한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 형성 전략: 영암 구림리의 도기문화마을 만들기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3(통권 19호), 한국지역지리학회, 326-346.
- 한정우, 2008, 안산시 원곡동 이주민의 영역화과정,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한해극복지편찬위원회, 1978, 77년 한해극복지, 농수산부 농업진흥공사.
- 행정안전부, 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보도자료 2010년 6월 11일자).
- 현택수, 2001, 문화의 세계화 담론과 문화정체성, 문화정책논총, 13, 1-25.
- 홍석준, 2003, 지역축제를 통해 본 지역정치와 정체성: 전남 영암, 영보 풍

- 향제의 사례,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6권 2호, 역사문화학회, 85-126.
- 홍인옥, 2001, 주거공동체와 재건축사업, 도시연구, 7호, 한국도시연구소, 75-95.
- _____, 2002, 지하주거의 실태와 문제점, 도시연구, 8호, 한국도시연구소, 58-96.
- _____, 2004, 주거빈곤계층의 주거실태와 지원방안: 비정상적인 주거를 중심으로, 국토, 270호, 국토연구원, 32-40.
- 황경수, 2004, 제주교통사소고, 온누리.
- 황석규, 1985, 도시 내 상층 이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시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Ashworth G. J. & Voogd H., 1990, *Selling the City: Marketing Approach in Public Sector Urban Planning*, Belhaven Press.
- Clifford, J., 1994,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9(3), 302-338.
- Faist, Thomas, 2000,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 Oxford University Press.
-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lackwell.
- Kearns G. & Philo, C., 1993, *Selling Places: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Pergamon Press.
- Leong, Laurence Wai-Teng, 1997, "Commodifying Ethnicity: State and Ethnic Tourism in Singapore", in Picard. Michel & Wood. Robert E., *Tourism Ethnicity and the State in Asian and Pacific Societies*, University of Hawaii Press.
- Lin, Jan., 2005, "Globalization and the Revalorizing of Ethnic Places in Immigration Gateway Cities", in Jan Lin and Christopher Mele (eds.), *The Urban Sociology Reader*. Routledge.
- Mak, Anna-Lisa, 2003, "Negotiating Identity: Ethnicity, Tourism and Chinatown", *Journal of Australian Studies*, 93-100.
- Portes, Alejandro, 1995,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Russell Sage Foundation.
- 한승훈의 제주이야기 홈페이지, <http://cafe.daum.net/jejuminyo>

Abstract

Immigration and Spatial Segregation in the Regional Development of Korea

A search for Immigrants' research direction in Jejudo

Yeum, Mi-Gyeong*

This article is a kind of the current view-like argument to discuss locality and local identity of the community which becomes a multi-cultural space while increasing in an international migration. In particular, this article treats the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a immigrant-up town, 'Henam town' who came to Jejudo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cess to understand community space which is being a multi-cultural one. Based on this analysis, the article tried to show immigrants' research direction in Jejudo. International-interregional migration and settlement take place at the specific place and make up through a specific place. A community multi-cultural acceptance matter of community to immigrants also spreads at a specific space and place not to make up by the abstract society which sneaked out of a place. Therefore, the future for immigrant research should be more focused on the immigrants' community and their lives in the community.

Key Words : Immigration, Spatial Segregation, 'Henam Town', Local Identity,
Jejudo

* Jeju National University

논문투고일 2010. 12. 10.

심사완료일 2011. 1. 20.

게재확정일 2011. 1. 29.